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루자” 결의 천명

간협, 2018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간호사·간호대학생 6천여명 참여 정책선포식 전 과정 ‘유튜브’ 통해 실시간 생중계



2018 간호정책 선포식 및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 및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 출범식’을 11월 1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천여명이 참여해 하나된 간호의 힘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 창조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 간호 중심으로의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슬로건 아래 △식전행사 △공식행사= 1부 간호정책 선포식, 2부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서는 포토존 기념촬영, 캐리커처 및 캘리그래피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홍보 영상물이 상영됐다.

무대 위에는 대한간호협회의 기와 시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의 기가 정렬돼 간호역사와 전통을 보여줬다. ‘진격의 복소리’ 대북공연이 진행됐으며, 대한간호협회 및 국제간호협회 기와 함께 웅장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왼쪽 가슴에 ‘간호법 제정!!’ 글씨가 새겨진 핫핑크 스티커를 붙여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 슬로건과 ‘간호법 제정!!’ 구호가 새겨진 막대풍선을 신명나게 두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간호정책 선포식의 막이

올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여주신 자랑스러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여러분, 멀리서 오신 과묵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2009년 ‘국민과 함께 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슬로건으로 시작한 간호정책 선포식이 어언 10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100년의 역사는 우리 간호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초석이자 근간이 됐다”면서 “자랑스러운 간호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 100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일화를 실현했다”면서 “2015년에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사 확보 정책으로 입학정원만을 증원해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함으로써 간호정책은 대전환을 이뤘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조직 설치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이제 간호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국민건강증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전담부서를 설치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간호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3차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일원료 보상체계에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행법과 원칙을 무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개편한 간호사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들이 소개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 이애주 전 국회의원, 박윤옥 전 국회의원, 이순영 서울 동대문구의회원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단체장 및 유관단체장,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권명옥 여성장군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한 내빈들은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빈 축사 3면에)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8대 중점과제가 발표됐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호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8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일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 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수여하는 ‘제6회 간호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장영숙 전남간호사회장이 대리 수상했다. 상패는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전달될 예정이다. (간호대상 4면에)

이어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회장단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일어서 간호정책 선포식의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를 제창했다. 간호정책 영상이 상영됐으며,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으며,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이 특별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화보집’을 아네트 케네디 회장에게 증정했다. (널싱 나우 5면에)

공식행사가 마무리된 후 콘서트가 이어졌으며, 인기가수 플립과 노을이 무대에 올라 객석과 하나되는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행운의 경품추첨을 통해 삼성 노트북, 다이슨 청소기, 애플워치, LG 퓨리케어 공기정정기,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자이글 그림, 화장품,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참석자들에게 돌아갔다. 1등 상품 노트북은 유혜림 학생(인천재능대 간호학과 1학년)이 받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1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100만 국민이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고령사회, 만성질환 급증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간호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이 통합된 간호법 체계 속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실현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담체계 확립
-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 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 양질의 수준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 양성 체계 혁신

2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립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만명에 이르는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는 인력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체계 및 관리, 간호대학 양성교육 질 제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3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올해 7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업’은 예외업종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장시간 근무는 피로 유발, 생산력 저하, 위험 증가로 이어져 간호사의 지속근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8시간 노동 준수는 간호사의 건강, 장기근속,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것입니다.

4 간호 중심의 일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입원환자가 받는 서비스 대부분이 간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원료 내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5%입니다. 이마저도 간호사 보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개편으로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되도록 일원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혁신하여야 합니다.

5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커뮤니티 케어는 중앙의 획일적·일률적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사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체계입니다. 자랑스런 100년 전통의 대한간호협회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20여개의 분회, 산하단체가 주축이 되어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실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영리 중심의 재가 및 시설에서 탈피하여 규모를 갖춘 지역 간호조직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6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우리 사회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 노인인구의 약 89%가 2~3가지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과 같은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만으로는 급격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뿐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 간호조직과 돌봄인력들을 조직하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중심형 거점 통합재가기관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7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8,556명(2017년 12월말 기준)에 달하나, 이 중 공무원은 4,901명 57%에 불과합니다.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위 확보는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등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직 전담공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간호직(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8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 유형 변화에 따른 전문직 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수행되고 있음에도 낮은 의료법 체계가 현실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부문은 지속적으로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취·노인 등의 13개 전문간호분야 업무를 체계화하여 낮은 의료인력 업무체계를 전문간호사 업무체계 법제화로 혁신하겠습니다.